할리우드산 블록버스터 공습 시작됐다

'아이언맨2'

'아이언맨2' '로빈후드' '슈렉 포에버'
막대한 제작비 투입 '흥행몰이' 나서

막강한 제작비를 투입한 할리우드산 블록버스터들의 공습이 시작됐다.

첫 테이프를 끊은 '타이탄'이 2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언맨2'를 비롯한 대작들이 속속 개봉을 앞두고 있다.

한국 영화의 경우 5월까지는 이준익 감독의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 을 제외하고는 규모가 큰 작품은 없는 상황이라 당분간 할리우드 영화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개봉, 43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던 '아이언맨'의 속편 '아이언맨 2'는 29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로버트 다우 주니어와 카메론 디아즈 등 전작의 배우들이 그대로 출연하는 가운데 새로운 캐릭터들이 투입돼 기대감을 높인다.

토니 스타크의 동료 제임스 로드가 아이언맨과 최강 콤비를 이루게 된 새로운 수퍼 히어로 '워 머신'으로 출연한다.

악역 역시 만만치 않다. 토니 스타크에 대한 적대감으로 스스로 아크 원자로를 제조해 막강한 위력을 손에 넣은 뒤 아이언맨에 온몸으로 맞서는 악당 '위플래시' 역으로는 미키 루크가 출연하며 섹시한 매력과 화끈한 액션을 겸비한 러시아 스파이 '블랙 위도우'로 스칼렛 요한슨이 출연한다.

5월 개봉작들은 화려하다.

63회 칸 영화제 개막작으로 확정된 '로빈후드'는 5월 13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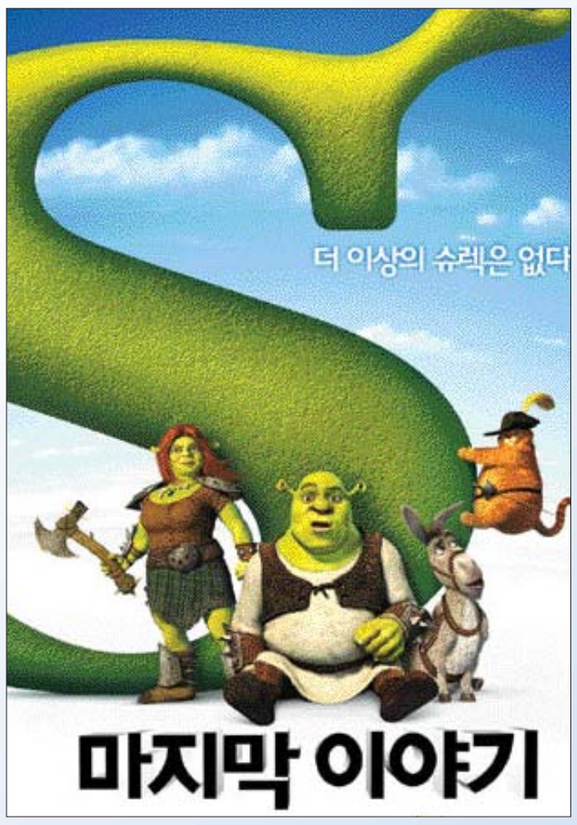
'글레디에이터'의 리들리 스콧 감독과 러셀 크로가 10년만에 만나 화제를 모은 '로빈후드'는 기존에 영화화된 '로빈후드'와는 달리 '글래디에이터' 못지않은 액션으로 기대를 사고 있다.

1980년대를 풍미했던 PC 게임에서 모티프를 따온 액션 판타지 영화 '페르시아 왕자-시간의 모래' 는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의 제리 브룩하이머와 '해리 포터와 불의 잔'으로 판타지 영화에 일가를 이룬 마이크 뉴웰 감독이 의기투합한 액션 어드벤처 블록버스터다.

'페르시아의 왕자- 시간의 모래'는 6세기 가상의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세계를 정복하려는 악의 무리로부터 '시간의 모래'를 지키려는 다스탄 왕자의 모험을 그린다.

그밖에 1억 6000만 달러를 쏟아부은 3D 애니메이션으로 미국 개봉 당시 흥행 대박을 터트린 '드래곤 길들이기' 역시 가족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슈렉', '쿵푸팬더'의 제작사 드림워크 작품인 '드래곤 길들이기'는 용맹한 바이킹과 사나운 드래곤들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신화적 세상 벌크 섬을 배경으로 바이킹 족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소년 히컵이 펼치는 스펙터클 한 모험을 그린 영화다.



'슈렉 포에버'

7월 개봉 예정인 '슈렉 포에버'는 지난 2001년 첫 선을 보인 애니메이션 '슈렉'의 완결편이다.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슈렉이 엄청난 사기극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모험담을 그린 '슈렉 포에버'는 현상수배범이 된 피오나 공주와 슈렉을 알아보지 못하는 절친 동키, 장화신은 고양이 등 전작의 주인공들이 그대로 출연한다.

또 불꽃 머리를 자랑하는 럼플이 새로운 악당 캐릭터로 등장하며 카메론 디아즈, 안토니오 반데라스, 에디 머피 등 전작에서 목소리 연기를 맡았던 배우들이 다시 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 영화 허트 로커

이라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폭탄 제거반 대원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올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폭풍 속으로' 등을 만들었던 캐스린 비글로는 전 남편인 '아바타'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제치고 여성으로서 첫 감독상의 영예를 안았고, 작품상 등 6개 부문을 휩쓸었다.

2004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폭발물 제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부

이라크 폭탄 제거 미 특수부대원들의 조마조마한 이야기

대 EOD. 그들은 3인 1조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한 사람은 폭발물 뇌관을 제거하고 나머지 2명은 경계병들이다. 경계병 2명은 폭발물 제거 팀장을 보호하고 혹여 다른 폭탄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주변 건물에 총부리를 겨눈다.

모두가 신임하던 톰슨 상사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죽자, 새로운 팀장 제임스가 부임한다. 제임스는 뛰어난 실력을 갖췄지만 독단적인 행동으로 팀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자폭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은 도처에 도사린다.

제레미 레너, 안소니 마키, 브라이언 개러티, 가이 피어스 등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15세 이상 관람가〉